



보도시점 (지 면) 8.1.(목) 조간
(인터넷) 7.31.(수) 12:00

차세대 해양이동수단(모빌리티) 신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한-영 기술·제도협력 추진

-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(모빌리티) 국제적(글로벌) 혁신특구,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를 위한 한-영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원탁회의(라운드 테이블) 개최
-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구기업 기술애로 지원
- 영국 Catapult 혁신 협력지구(클러스터)와 신기술 규제개선 협업 추진

【 친환경 선박 한-영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원탁회의(라운드테이블) 】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영국 버밍엄에서 31일 오후 5시(현지시각)에 부산 차세대 해양이동수단(모빌리티) 국제적(글로벌)혁신특구의 친환경 선박 및 핵심기자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“한-영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원탁회의(라운드테이블)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국제적(글로벌) 혁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,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, 국내외 실증 및 해외 인증 등을 추진하는 혁신 협력지구(클러스터)이다. 금년 4월 부산, 강원, 전남, 충북 등 4곳이 처음 지정되었으며, 부산 특구(차세대 해양 이동수단(모빌리티))는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 및 녹색 해운 향로 실증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.

이번 원탁회의(라운드테이블)은 영국의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주요 관계자 및 유럽 조선해양 전문가와 한국의 부산 TP, 특구 기업이 참여해 암모니아 병커링 기술, 선박 온실가스 솔루션 등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 공동 연

구개발(R&D) 협력자(파트너)를 매칭하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특히 유럽-한국 조선해양전문가협회(EKMOA) 정병욱 회장 등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해양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, 실증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다.

또한 영국에서 조선해양공학 분야 1위이자 글로벌 순위 7위인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의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, 친환경 선박 등 기후기술(테크)에 특화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과의 협업은 부산 차세대 해양이동수단(모빌리티) 국제적(글로벌) 혁신특구와의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협력관계(파트너십) 구축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 차세대 해양이동수단(모빌리티) 한-영 국제공동 연구개발(R&D) 원탁회의(라운드 테이블) >

- (일시·장소) 7.31(수) 17:00 (현지 시각), 워릭대학교(영국 버밍엄)
- (참석)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,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장, 특구기업, 해양대,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, 로이드 등 조선해양전문가 25명 내외
- (내용) ①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, ② 선박 온실가스 솔루션 등 부산특구 해외 공동 연구개발(R&D) 과제 소개 및 구체화, 세계(글로벌) 조선해양 기술 경향(트렌드) 및 인증 관련 동향에 따른 특구 과제 방향성 제언 등

【 특구혁신기획단-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LOI 】

행사 당일 오후 1시경에는 특구기업 기술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* 간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“특구혁신기획단 -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LOI** 체결식”이 있었다. 이번 LOI를 계기로 특구 관련 영국 최신 기술 공유, 관련 전문가 매칭 및 기술 협력, 대학 등에 특구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. 금번 행사는 중기부의 첫 번째 재외한인과학자협회 간 LOI 추진으로 부산 특구 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해외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.

* 영국 내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단체로, 572명의 회원을 보유

** LOI(Letter Of Intent) : 정식 계약 전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

< 특구혁신기획단 -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LOI >

- (일시·장소) 7.31(수) 13:20 (현지 시각), 워릭대학교(영국 버밍엄)
- (참석)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,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등 10여명
- (내용) ① 국제적(글로벌)혁신특구 사업을 위한 정보공유·활용 및 기술 협력
②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, ③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

【 영국 혁신 협력지구(클러스터) 협업 】

또한, 중기부는 8월 1일 영국의 catapult 혁신 협력지구(클러스터)를 방문하여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. catapult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,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민-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협력지구(클러스터)이다.

catapult는 9개 분야의 센터를 설립하여 영국 내 65개 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, 금번 방문한 런던 Connected Places Catapult는 스타트업 육성(엑셀러레이팅), 교류·협력(네트워킹),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다.

이번 방문으로 중기부는 국내 특구사업자와 영국 친환경 선박 분야 산-학-연 전문가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 육성(엑셀러레이팅) 방안을 모색한다. 또한 모의실험(시뮬레이션) 실증 및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지원 기업을 매칭하여 특구의 녹색해운항로 모의실험(시뮬레이션) 실증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. 또한 부산특구-catapult 협력지구(클러스터) 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적(글로벌) 규범 마련에 공동으로 이슈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.

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“신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. 이번에 재외한인과학자들과의 교류·협력(네트워크)를 하게 된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” 라고 하였으며,

“한-영 양국간 기술·제도 협력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은 국내 규제환경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, 이러한 규제완화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용이하게 하여 기술혁신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.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창업벤처혁신실 특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석배 (044-204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원미연 (044-204-7204)
			주무관	정승현 (044-204-720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